

“봄동 김치 맛 보세요”... 외식업계, 제철메뉴·상품 전면

제일제면소 미나리·바지락 신메뉴 본도시락 냉이 등 한식 한 상 제안 증가 '봄동겉절이' 신제품 출시 배상면주가 '냉이술' 한정판 선택

봄에만 즐길 수 있는 식재료를 앞세운 시즌 한정 상품이 잇따라 등장하며 식품·외식업계에 '제철 마케팅' 바람이 불고 있다. 봄동을 활용한 김치 제품부터 미나리·바지락을 활용한 외식 메뉴, 냉이로 빚은 전통주까지 카테고리별 넘나드는 신제품이 출시되면서 짧은 제철 수요를 선점하려는 움직임이 본격화하는 모습이다.

업계는 계절성이 뚜렷한 원재료를 활용해 소비자가 체감하는 신선도를 높이고, 한정 판매 전략으로 구매 전환을 끌어올리겠다는 전략이다. 최근에는 특정 계절의 먹거리를 경험할 수 있는 '제철 코어' 트렌드까지 확산되면서 관련 제품 출시도 더욱 활발해지고 있다.

외식업계에서는 제철 나물과 해산물을 활용한 시즌 메뉴를 선보이며 봄 입맛 공략에 나섰다.



제일제면소의 미나리와 바지락 활용한 봄 시즌 메뉴. /CJ푸드빌

CJ푸드빌이 운영하는 제일제면소는 미나리와 바지락을 활용한 봄 시즌 메뉴 '바지락 비빔 칼국수'와 '바지락 무침'을 출시했다. 통통한 바지락과 향긋한 미나리를 특제 양념에 비벼 즐기는 '바지락 비빔 칼국수'는 담백한 감칠맛과 봄나물 특유의 향이 어우러져 산뜻한 풍미를 강조한 메뉴다. '바지락 무침'은 매콤새콤한 양념에 바지락과 미나리를 버무려 쌈 채소와 함께 즐기는 별미 메뉴로 구성했다.

도시락 프랜차이즈도 봄나물을 활용한 메뉴를 강화하고 있다. 본아이에프의 프리미엄 한식 브랜드 본도시락은 봄 제철 식재료인 냉이를 활용한 시즌 메뉴 4종을 출시했다. '봄냉이무침 양념돼지구이 쌈밥 한상', '봄냉이무침 양념돼지구이 국반상', '봄냉이무침 양념돼지구이 반상', '봄냉이무침 제육덮밥' 등으로 구성된 메뉴로, 향긋한 냉이무침과 양념돼지구이를 조합해 봄철 입맛을 돋우는 한식 한 상을 제안했다. 브랜드 측은 제철



봄동겉절이. /대상

식재료와 건강 콘셉트를 결합해 계절의 정취를 식탁 위에서 경험할 수 있도록 기획했다고 설명했다.

가정간편식(HMR)과 김치 제품에서도 제철 식재료를 활용한 한정 상품이 등장하고 있다. 대상 증가는 봄동을 활용한 시즌 한정 김치 '봄동겉절이'를 출시했다. 겨울 동안 당분을 저장해 달큰하고 고소한 맛이 살아 있는 국내산 봄동을 활용한 제품으로 출시 약 두 달 만에 판매량이 2만 개를 넘어섰다. 중량 기준으로 는 약 22톤에 달한다.

최근 SNS에서는 봄동겉절이에 밥을 비벼 달걀프라이와 참기름을 더해 먹는 '봄동비빔밥'이 화제를 모으고 있다. 데이터 분석 플랫폼 썬트렌드에 따르면 올해 1월 13일부터 2월 12일까지 '봄동비빔밥' 언급량은 전년 동기 대비 6배 이상 증가했다. 제철 식재료를 활용한 간단하면서도 계절감을 느낄 수 있는 집밥 메뉴로 확산되는 분위기다.

주류 업계에서도 제철 원료를 활용한 한정 상품을 선보이고 있다. 배상면주가 는 포천 참방이를 활용해 빚은 '냉이술'을 2026년 한정판으로 출시했다. 쌀과 냉이를 함께 발효해 짭짤한 냉이 향과 구수한 풍미가 어우러지는 것이 특징으로 봄철 채소 튀김이나 나물 요리와 잘 어울리는 계절 술로 기획됐다.

업계 관계자는 "제철 식재료는 신선도와 계절성을 동시에 전달할 수 있어 소비자 반응이 높은 편"이라며 "특히 '지금 아니면 맛보기 어렵다'는 희소성이 더해지면서 시즌 한정 상품의 마케팅 효과도 커지고 있다"고 말했다.

/신원선 기자



tree6834@metroseoul.co.kr

CJ프레시웨이, 학교급식 기름기 뺀다

'튼튼스쿨 오브닝 시리즈' 신상품 출시 오븐 조리 방식으로 건강한 식생활 지원

CJ프레시웨이의 학교급식 특화 브랜드 '튼튼스쿨'이 오븐 조리형 상품을 본격 확대한다. 기름 사용을 줄여 학생들의 건강한 식생활을 돕고, 급식 종사자의 조리 환경 개선까지 함께 도모한다는 전략이다.

CJ프레시웨이는 신학기를 맞아 오븐 조리형 상품 '튼튼스쿨 오브닝 시리즈'의 신상품을 출시한다고 5일 밝혔다. 해당 시리즈는 돈까스, 떡갈비 등 학생 선호도가 높은 메뉴를 오븐 조리 방식으로 구현한 것이 특징이다.

이번에 선보인 '튼튼스쿨 오브닝 시리즈'는 ▲'오브닝 더 바삭' 4종 ▲'오브닝 더 촉촉' 3종으로, 메뉴 특성에 맞춰 식



튼튼스쿨 오브닝 더 바삭 별이 내리는 통살치킨. /CJ프레시웨이

감을 달리 구현한 것이 특징이다. '오브닝 더 바삭'은 치킨, 까스류 중심으로 구성돼, 오븐 조리임에도 바삭한 식감으로 기존 튀김 메뉴를 대체할 수 있도록 했

다. '오브닝 더 촉촉'은 너비아니와 떡갈비 등 반찬형 메뉴로 구성돼, 오븐 조리 시에도 촉촉한 식감과 육즙을 유지하도록 설계됐다.

해당 상품들은 모두 오븐 조리에 최적화돼 별도의 튀김 공정 없이 조리가 가능하다. 이를 통해 급식 현장에서 조리 부담을 줄이면서도, 성장기 학생들의 영양을 고려한 메뉴 운영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CJ프레시웨이 관계자는 "오브닝 시리즈'는 학생 선호도가 높은 급식 메뉴를 오븐 조리 방식으로 구현한 상품"이라며 "앞으로도 기름 사용을 줄이면서 급식 현장의 조리 환경 개선과 운영 효율화에 기여할 수 있는 상품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신원선 기자

CJ올리브영, '미국 서부센터' 물류거점 구축

K-뷰티 상품 '엔드 투 엔드' 서비스

CJ올리브영은 미국 캘리포니아주 블룸딩턴에 현지 첫 물류 거점인 '미국 서부센터'를 구축했다고 5일 밝혔다.

올리브영 미국 서부센터는 약 3600㎡(1100평) 규모로, 올리브영을 거쳐 북미 전역에 유통되는 K뷰티 상품의 물류 허브 역할을 맡게 된다.

물류 인프라가 갖춰진 만큼 올리브영은 이를 활용해 현지 매장에 입점하는 브랜드 지원에 나선다. 자체 배송 인프라가 부족한 브랜드를 뒷받침한다는 방침이다.

또 북미 지역 세포라 매장 내 'K뷰티 존'에 입점하는 브랜드 대상으로 전 물류 과정을 책임지는 엔드 투 엔드 서비스를 제공한다. 앞서 올리브영은 세계 최대 뷰티 유통 채널 세포라와 파트너십을 체결, 직접 큐레이션한 'K뷰티 존'을



미국 캘리포니아주 블룸딩턴에 위치한 올리브영 미국 서부센터 전경. /CJ올리브영

오는 8월 세포라 온·오프라인 채널에 선보이기로 한 바 있다.

올리브영 관계자는 "5월 현지 매장 오픈을 앞두고 K뷰티 수요에 안정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핵심 물류 네트워크를 구축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라며 "이를 기반으로 현지 리테일 경쟁력을 강화해 나가는 한편 K뷰티 유망 브랜드의 북미 시장 진출도 적극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청하 기자 mlee236@

롯데온, '뷰세라' 기획전

롯데쇼핑의 e커머스 플랫폼 롯데온(LOTTE ON)은 15일까지 '뷰세라(뷰티 세일 라인업)'를 진행한다고 5일 밝혔다.

뷰세라는 매 시즌 인기 뷰티 브랜드 상품을 한데 모아 선보이는 기획전으로, 봄 시즌을 맞아 스프링 메이크업과 베스트 셀러 중심의 라인업으로 구성했다.

매일 공개되는 오늘의 특가 제품은 롯데온에서만 만나볼 수 있는 단독, 기획 상품 라인업으로 준비했다. 아울러 행사 기간 중 월·목·토 오전 10시에는 베스트 셀러를 1만 원 미만에 구매할 수 있는 선착순 체험단을 진행한다.

최대 3만 엘포인트(L.POINT)의 행운을 잡을 수 있는 '뷰세라 쇼퍼지원금' 이벤트도 진행한다.

/신원선 기자

SSG닷컴, 창립 12주년 기념 '해피버츄데이'

물가 부담완화 초점... 2000억 규모

SSG닷컴이 창립 12주년을 맞아 대규모 할인전에 나선다.

SSG닷컴은 15일까지 11일간 총 2000억 원 규모의 '해피버츄데이'를 진행한다고 5일 밝혔다. 식품과 비식품을 아우르는 연중 최대 수준 물량으로 장바구니 물가 부담 완화에 초점을 맞췄다.

행사 전면에는 이마트 상품력을 기반으로 한 신선식품이 배치됐다. 국내산 냉동삼겹살(1kg)을 1만9000원대, 냉장한우등심(300g)을 2만1000원대에 판매하는 등 주요 축·수산·과일 품목을 최대 50% 할인한다. 당일 도정 햄살(10kg), 조선호텔 포기김치(5kg) 등 장보기 수

요가 높은 상품도 특가에 선보인다.

가공식품은 초특가, 생필품은 1+1 구성으로 체감 혜택을 높였다. 멸균우유, 간장, 식빵, 화장지 등 일상 소비재를 중심으로 프로모션을 집중했다.

배송과 멤버십 혜택도 강화했다. '쓱 배송' 상품은 당일 및 지정일 배송이 가능하며, 신선식품은 품질 불만족 시 환불·교환을 보장한다.

비식품 카테고리에서는 로보락 신제품 'S10 MaxV Ultra'를 특가에 선보이고, 나이키 러닝 의류, 르크루제 주방용품, 크리스찬 디올 뷰티 메이크업 컬렉션 등 인기 브랜드 행사도 병행한다. 숙박 상품으로는 신라모노그램 강릉 객실 패키지를 특가에 판매한다.

/신원선 기자

롯데백, '무신사 아울렛' 1호점 오픈

은평점에 약 480평 규모 조성

롯데백화점이 서울 서북권 패션 수요 공략에 속도를 낸다. 롯데백 은평점에 '무신사 아울렛' 1호점을 열고 1030세대 집객에 나선다.

롯데백화점은 은평점 지하 1층에 약 480평 규모의 '무신사 아울렛'을 오픈했다고 5일 밝혔다.

매장에는 200여 개 브랜드가 입점해 의류·잡화·뷰티 전 상품을 최대 80% 할인 판매한다. '무신사 걸즈', '무신사 영' 등 연령·취향별 존을 구성해 동선을 효율화했다. 아디다스, 푸마 등 스포츠 브랜드와 K-디자이너 브랜드를 함께 선보

인다.

리커머스 수요를 반영한 '무신사 유즈드'도 오프라인 1호로 도입했다. 무신사 검수를 거친 70여 개 브랜드의 중고 상품을 판매하며, 온라인 중심이던 중고 패션을 오프라인으로 확장했다는 점이 특징이다. 폴로 랄프 로렌, 노스페이스 등 세컨핸즈 수요가 높은 브랜드를 구성했다.

명품·뷰티 콘텐츠도 강화했다. '부티크' 존에는 보테가 베네타, 자크뫼스, 메종 마르지엘라 등을 모았고, '뷰티' 존에서는 메디필과 무신사 스탠다드 뷰티 상품을 특가에 선보인다.

/신원선 기자